

記 念 辭



바쁘신데도 불구하고 「협회 회관건립 및 창립 10주년 기념식」에 참석하여주신 원로 선배님과 협회 전·현직 임원, 지회장 그리고 회원여러분!

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.

특히, 오늘은 회원 및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협회회관을 우리의 힘으로 마련하고, 회관에서 처음으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는 매우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.

새 생명이 산고의 고통 끝에 탄생되듯이, 이제 우리 협회는 원로 선배님은 물론 모든 회원님들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

전력기술인의 구심체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그 결과, 우리 협회는 재정적으로나 회원수로나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.

물론, 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 그 이면에는 음과 양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, 특히 협회 초창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 및 임·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.

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, 우리 협회는 1963년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모태로 태동하여 어려운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 오다가, 1995년말 「전력기술관리법」이 제정되면서 1996년 전국의 전력기술인을 포용하는 구심체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재 창립하게 되었으며, 오늘 그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

또한,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오늘, 협회 역사 43년만에 전기인

및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마련한 “협회 회관건립”을 축하하는 자리를 겸하게 되어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.

그 동안 협회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신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, 후원 해주신 분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일 정금액 이상 기부한 분들의 이름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회관 현관에 설치하였습니다.

다함께 협회 회관건립과 창립 10주년을 자축하고 회관건립에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.

그 동안 정부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 완화, 설계·감리용역의 통합발주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, 우리 협회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,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큰 탈없이 전력기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“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” 행사와 “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” 등을 통해 협회와 전력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, 협회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등 양적·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.

이제 우리 협회는 전력산업의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량을 키워,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전력기술로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

앞으로 모든 회원과 전력기술인의 힘을 모아 우리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.

오늘 협회회관 마련에 기여하신 공로로 공로패를 받으신 분들과 타의 모범이 되어 2006년도 우수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

끝으로, 협회 회관건립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원로 선배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, 아울러 우리 협회가 발전하는데 더욱더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·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,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크게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2006년 11월 28일
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**이 희 평**